(201306) - .indd 34 13. 5. 24. 4:41

#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,
#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!

**신국원** (총신대 신학과 교수, 세계관아카데미 소장)

**해외에서도 한국 대중문화의 힘이 커져가고 있습니다.
재미는 물론, 모두가 따라하고 있는 문화. 모두가 따라한다고 우리도 따라가야 할까요?
지금의 대중문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바라 봐야 하며
아이들에게 어떻게 '분별'을 가르칠까요?**

## Q1.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심코 하는 말들과 행동, 춤과 옷차림들을 보면 지금의 대중문화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?

뉴욕이나 토론토의 지하철에서 서너 가지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. 이젠 서울 거리에서도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. 이른바 세계화로 우리나라도 21세기 안에 다문화를 넘어 다민족 사회로 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그것은 다양한 세계관이 저마다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요란한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.

이런 사회에 살아가게 될 우리의 아이들에겐 세계관을 분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. 링컨은 나이가 마흔이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. 아직 십대이니까 얼굴 전체는 아니더라도 눈은 책임질 수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.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판단도 해야 바르게 살 수 있으니까요.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자신의 진로를 찾을 눈이 있어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거든요.

눈높이는 직업 선택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같은 값을 주고 옷 한 벌을 사도 멋쟁이가 있는가 하면 봐주기 어려울 정도로 촌스러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같은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이는 진리와 예술적 아름다움을 누리지만, 말초적 자극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.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